

What makes a word "real"?

00:12	제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해야될 것 같군요. 언뜻 보기엔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00:21	사람들이 저를 파티에서 만나서 제가 언어를 전공하는 영어과 교수라는 것을 알았을 때 보통 두 가지 중 한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번째 반응의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오, 말할 때 조심하는게 좋겠군요. 제 말실수를 다 들으실테니까요." 그러곤 말을 하지 않아요. (웃음) 그리고 제가 가기만을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과 얘기해요. 두번째 반응의 사람들은 눈을 번쩍 뜨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바로 제가 얘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영어의 어떤 점이 잘못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웃음)
01:10	몇주전 제가 저녁 식사 파티에 있었는데 제 오른쪽에 있던 남자가 인터넷이 어떻게 영어의 품위를 낮췄는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대해 언급하더니 "친구끊기? 이게 단어이긴 합니까?"
01:29	여기서 잠깐 물어보고싶네요. 어떤 것이 진짜 단어를 결정할까요? 저와 저녁을 한 사람과 전 모두 동사 "친구끊기"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끊기"처럼 새로운 단어는 언제 진짜 단어가 될까요? 도대체 누가 단어에 대해 공식적인 결정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거죠? 오늘 이러한 질문들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01:56	제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단어가 진짜 단어가 아니라고 할 때 그들이 뜻하는 바는 그 단어가 표준사전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른 질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사전을 작성하느냐라는 것까지도요.
02:11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제 역할을 확실히 해둘게요. 전 사전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어들을 수집하죠. 사전 편집자들이 하는 것만큼이나요. 그리고 영어 사학자가 되어서 좋은 점 하나는 이것을 "연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어의 역사를 가르칠 때 수업 시작 전 학생들에게 은어 두 개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수년간 이런 식으로 꽤 많은 은어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화고파(hangry)" 같은 것도 배웠습니다. (박수) 배고파서 짜증나거나 화날 때 쓰는 말이죠. "바랑스러운(adorkable)" 바보같지만 너무 사랑스러울 때 쓰는 말이죠. 확실히 영어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멋진 단어들이죠. (웃음) 하지만 은어로 자주 쓰는 단어가 사전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진짜인걸까요?
03:27	이를 염두에 두고 사전을 봅시다. 한번 손들어 보죠. 꾸준히 사전을 보시는 분? 책이나 온라인이나 상관없어요. 좋아요, 거의 모든 분이 드셨네요. 그럼 두번째 질문. 다시 손들어 주세요. 여러분 중 지금 쓰고 계시는 사전을 누가 편집했는지 찾아보신 분 계신가요? 좋아요, 훨씬 적어졌군요. 우리는 사전을 만드는데 사람 손을 거친다는 것을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손을 거치는지 모릅니다. 사실 전 이것에 매료되었습니다. 심지어 비평가들조차 사전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고 구별을 못하죠. 그리고 누가 편집을 했는지 질문도 하지 않고요. "사전을 찾아봐"라는 문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모든 사전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으러 가는 학교의 도서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의 명예의 전당 선반위에 누구나 가서 답을 얻을 수 있게끔 펼쳐져있는 큰 원문으로 된 사전이 있을겁니다.
04:43	오해하지 마세요. 사전은 최고의 자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들었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전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읽는 모든 글과 그들이 방문하는 모든 사이트를 비평적으로 질문해보라고 우리가 말한다는데서 교사로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대해 마치 저자가 없고 단어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 사전 편집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변화시키는 것에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쓰는지 어떤 것이 남고 어떤 것이 빠질지 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도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선을 고집하고 그런 단어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LOL(크게 소리내 웃다) 같은 것들요. 하지만 일시적 유행어를 올리거나 적합하지 않은 단어들을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 주시하고 있는 단어는 YOLO, you only live once (한번뿐인 인생)
05:49	요즘 저는 사전 편집자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가는지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매년 1월에 저희는 미국 방언 연간 모임에 참석합니다. 거기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하지만 저희는 특히 올해의 단어를 투표합니다. 보통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오는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언어학자들도 옵니다. 모임의 분위기를 알려드리자면 식사 할인시간 바로 전에 모임을 갖습니다. 오시는 분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규칙은 한 단어에만 투표를 할 수 있다는거죠. 여태까지 선정된 것들은 2009 년엔 "트윗" 2012년엔 "해쉬태그(#)" 2000년엔 "차드(작은 종잇조각)," 2000년 이전에는 아무도 차드를 몰랐어요. 2002년엔 "WMD(대량 살상 무기)" 였습니다.
06:43	저희는 다른 것에도 투표를 합니다. 그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한해의 가장 창의적인 단어 부문입니다. 역대 선정단어는 "혼란 방지 구역" 밀워키 공항에서 보안대를 거치면 있는 곳인데 거기서는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웃음) 다시 벨트를 차고 컴퓨터를 가방에 집어넣을 수 있죠. 이 투표에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단어는 바로 "물کم (물래 컴퓨터)" 입니다. (웃음) 물کم은 수많은 윈도우 창을 스크린에 띄워 놓는 행동입니다.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터넷하면서 놀고 있는거죠. (웃음) (박수)

07:33	이 모든 단어가 등재 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저희는 의문을 갖게 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 2006년에는 올해의 단어가 "명왕성화"였는데 좌천되다라는 뜻입니다. (웃음) 하지만 역대 선정단어 중 몇 개는 특출나 보이지 않아요. "앱"이라거나 "e"를 접두사로 쓴다거나 "구글"을 검색한다는 동사로 쓰는 것들요.
08:02	그래서 저희가 투표하기 몇 주 전에 레이크 수퍼리어 주립대학은 올해의 사라진 단어 목록을 발행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이 목록의 단어들과 올해의 단어 후보들 중 겹치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저희가 같은 것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중요해지는 단어들을 보았습니다. 다만 태도의 문제일 뿐이었죠. 여러분은 유행어나 언어의 변화에 불편함을 느끼세요? 아니면 그 단어들이 흥미로워서 살아있는 언어의 부분으로서 공부할 가치가 있나요?
08:43	레이크 수퍼리어 주립 대학의 목록은 새로운 단어를 불평하는 영어의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75년에 헨리 알포드 학장은 "바람직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끔찍한 단어로 생각했습니다. 1760년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데이비드 흄에게 편지를 써서 "식민지화"는 나쁜 단어이니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09:07	몇년 간 저희는 새로운 발음에 대한 걱정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1855년에 사무엘 로저스는 공격성이 짙은 유행 발음들을 걱정하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contemplate도 불쾌하지만 발코니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구나." (웃음) 이 단어는 이탈리아에서 왔는데 발-코(COE)-니라고 발음되었죠.
09:34	매우 예스럽게 느껴지는 불평이네요. 바람스럽지만 않다면요. (웃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 언어 변화에 일조할 것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신문기사 철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등록되면 안되는 "LOL" 같은 불법적인 단어들이 옥스포드 영국 영어사전에 등록되었을 때나 "친구끊기(defriend)" 같은 단어들이 옥스포드 미국 영어 사전에 등록되었을 때 이를 걱정하던 신문기사들 철입니다. 저는 또한 "초대하다(invite)"를 명사로 "충격(impact)"을 동사로 쓰는 것을 걱정하는 기사들도 갖고 있습니다. impact는 매복 치아를 표현할 때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려하다"라는 단어가 "천박한, 관료주의의 말실수"라고 쓰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10:24	사전 편집자들이 전통적 언어 존중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용례 표시를 통해 은어, 비격식 용어, 공격적 어휘들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묘사하려 하기 때문에 다소 매여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주 사전을 찾아서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미국 유산 사전은 용례 노트를 제공합니다. 용례노트는 주로 문제가 많은 단어들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단어의 의미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용례 노트에는 사람들의 결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전 사용자로서 제 생각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쓴 내용인데도 그런 인식을 못합니다. 제 말뜻이 뭔지 설명하기 전에 그전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전 편집자들이 이 용례노트로 무엇을 하려는지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11:20	"숙독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요. 제 생각엔 많은 분들이 스킴(골라 읽기) 스캔(전체적으로 읽기), 빨리 읽기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몇몇분은 걸어다니면서 뭔가 하는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퍼마켓 선반들을 숙독한다고 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대부분의 표준 사전들을 살펴보고 첫번째 정의가 정독하다, 혹은 들이붙다 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미국 유산 사전은 그 것들을 첫번째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스킴(골라 읽기) 그 다음에는 "사용 문제" (웃음) 그리고 불만한 용례노트도 하나 있습니다.
12:06	용례 노트를 보여드릴게요. "숙독은 오랫동안 '세심하게 읽다'를 뜻했지만 자주 막연하게 사용되어서 단순히 '읽다'를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스킴(골라읽기)'이라는 뜻도 있는데 관습적으로 잘못 사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이 뜻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장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난 사용서를 빠르게 숙독할 시간밖에 없었다.' 1988년 용례조사 위원회의 66%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1999년에는 58% 2011년에는 48%가 되었습니다.
12:38	참! 용례 위원은 언어 권위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그들은 이것에 더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누가 용례 위원이지? 그들이 발표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미국 유산 사전의 전문을 보시면, 누가 용례 위원의 이름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사전의 전문을 찾아볼까요? 용례 위원에는 2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술 위원, 기자들, 창의적인 작가들이 있습니다. 대법관도 있고, 몇몇 언어학자들도 있습니다. 2005년에는 저도 명단에 들었습니다. (박수)
13:23	저희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여러 용례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알 수 있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권한에 속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저희는 언어 학원이 아닙니다. 저는 일년에 한번씩 새로운 용법, 새로운 발음, 새로운 의미가 합당한지에 관한 투표를 합니다.
13:48	그리고 전 이렇게 작성합니다. 전 다른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쓰는지 들으려고 합니다.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점과 싫어하는 점을 듣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저는 "영향력있는"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있는"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산문에서 더 용인되는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잘하는건 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보통 구글 북스같은 온라인 정보서적을 찾아보게 되죠. 만약 "영향력있는"이라는 단어를 구글북스에서 찾아보신다면 이러한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음, 확실히 "영향력있는"이라는 단어가 몇몇 작가들에게 유용하고 지난 20년에 걸쳐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14:36	<p>이제, 여러분은 싫어하더라도 언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정말? 그 말이 그런식으로 바뀌어야 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 변화는 나쁘다고 빨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너무 급히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생각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말하는 사람의 창의성으로 풍성하고 활기차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재미있는게 "멋지네(nice)"라는 단어가 바보같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대량학살(decimate)"이라는 단어가 10명 중 한명씩 죽이다라는 뜻으로 쓰였답니다. (웃음) 여러분들은 "주목(notice)"이 동사로 쓰이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벤 프랭클린이 바보 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음, 그거 아세요? 아마 우리가 "충격(impact)"을 동사로 쓰거나 "초대하다(invite)"를 명사로 쓰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이 100년 뒤엔 바보같아 보일 겁니다. 언어는 우리가 따라잡지 못할 만큼 빠르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언어가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어의 변화를 걱정하지 말고 재미있고 멋진 일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편집자들처럼요.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언어를 다시 만들고 팔팔하게 만드는 것에 즐겁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p>
16:12	<p>그러면 어떻게 단어가 사전에 등재될까요?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 편집자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단어의 뜻을 결정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전 "맞아요, 항상 그랬고요"라고 말할 겁니다. 사전은 아름다운 가이드이자 자원입니다. 하지만 단어가 무슨뜻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객관적 사전 권위자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한 공동체가 단어를 쓰고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안다면, 그것이 진짜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은어일수도 비격식적인 단어일수도 혹은 여러분들이 필요없다고 느끼거나 비 논리적인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 그 단어는 진짜 단어입니다.</p>
17:04	감사합니다.
17:06	(박수)